



마누라 이불 덮어주기

요셉회장 강종일(마태오)

사람에게 영원한 삶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거나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으며, 죽어서 영원한 삶을 원한다면 지옥도 영원한 삶이라서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시골에 사는 처남과 함께 공소에서 장례미사를 드린 적이 있었다. 장례식에서 현 공소회장이 조서를 낭독하면서 고인이 되신 전 회장의 이야기를 하셨다. 고인은 공소의 회장을 하면서 레지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셨는데 농사와 함께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니어서 활동할 만한 역할도 뻘뻘했다. 그런데 고인은 활동보고 시간에 매번 “협조단원 돌보기”를 보고하셨다고 한다.

낮에는 농사일에 바쁘고 저녁에나 시간이 날 텐데 언제 협조단원을 찾아가 돌보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여쭙았더니 “자고 있는 마누라 이불 덮어주기”라고 하셨단다. 가부장 문화가 심한 시골에서 게다가 부드러운 표현이

서툰 경상도에서 보기 드문 일을, 그것도 연세 많은 어르신께서 레지오를 빌미로 하셨다 하니 웃음이 절로 났다. 그러면 이불 덮어줄 남편이 없는 자매 교우들은 어떻게 하냐고 투덜거렸더니 비범으로 “외인 돌보기”가 있다며 “술 먹고 돌아온 남편 씻기고 채워주기”를 활동보고로 하라고 일러주셨다고 한다.

영원한 생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가슴 따뜻한 사랑이다. 지워지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랑이다. 우리가 받았던 따뜻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전해진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 기쁨을 심어주는 것이기에 참 생명의 삶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작지만 따뜻한 이야기와 추억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줌으로서 제자들 가슴속에서 영원히 잊혀 지지 않으셨다. 사도들 역시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으로 다가갔기에 오늘날 교회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도 가슴 따뜻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영원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 

주일전례

제 1독서 2열왕 5.14-17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제 2독서 2티모 2,8-13

복음 루카 17,11-19

연중 제 28주일 화답송 【다해】

시편98(97), 1. 2-3 ㄱ. 3 ㄷ ㄹ-4



(후렴) 주님은 당신 구원 - 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